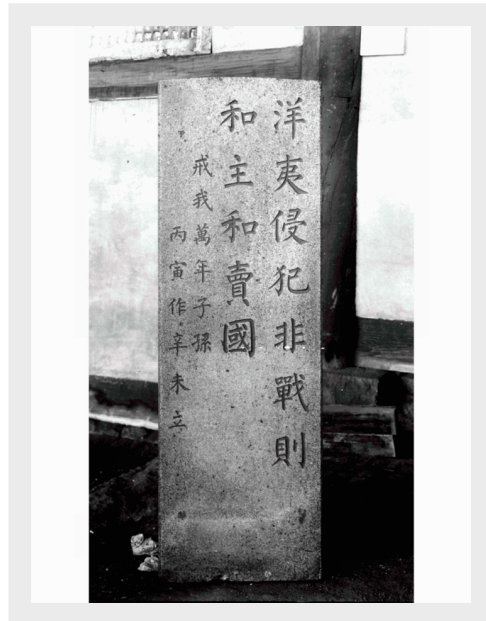


척화비[斥和碑]

양이(洋夷)와 타협을 거부하다

1871년(고종 8) ~ 미상



1 개요

19세기 후반 조선과 서양 세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1871년(고종 8) 서양 세력과의 수교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종각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척화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882년(고종 19) 척화를 주도하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중국으로 끌려가고, 미국 등 서양 각국과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고종은 전국의 척화비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2 조선 후기의 제한된 대외관계

조선 후기 조선의 대외관계는 중국(청), 일본(막부, 대마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시적으로 민간인들이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양측 국가에서 파견하는 사신(使臣)만 국경을 넘어 상대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민간인들은 사신의 행차가 있을 때만 사행단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인 무역을 행하였다. 개인적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모든 교류는 국가의 공적 방식을 통해서

만 이루어졌다. 조선에서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고도 불리는 대외관계를 유지하였고, 19세기 이후 서양 각국이 조선에 새로운 국제관계를 요구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 관계를 내세워 거부하였다.

3 이양선의 출몰과 위기의식의 고조

19세기 이르면 서양 선박의 출몰이 빈번해졌다. 이양선(異樣船)으로 불리는 서양의 배들은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 식수와 식량을 요구하거나, 멋대로 측량을 하거나 심지어 약탈을 행하기도 했다. 1832년(순조 32) 동인도 회사 소속의 로드앰허스트(The Lord Amherst)호가 황해도 장연현 몽금포 앞바다에 출몰했다가 이후 충남 홍주에 다시 나타나 교역을 요청했다. [관련사료](#) 1840년(헌종 6) 영국 선박 2척이 제주도 인근 가파도에서 민간의 소를 약탈했고, [관련사료](#) 1845년(헌종 11)에는 영국선 사마랑(Samarang)호 등이 흥양(興陽, 현 전라도 고흥 일대)과 제주도 사이를 이동하며 측량을 했다. [관련사료](#) 이듬해(1846, 헌종 12) 프랑스 선박 3척이 나타나 1839년(헌종 5) 천주교도 살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성실한 답이 없을 경우 큰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문서를 보내왔다. [관련사료](#) 1847년(헌종 13)에는 프랑스 선원이 전라도 부안 앞바다에 표류하여 이들을 송환하였다. [관련사료](#) 1848년(헌종 14) 함경도 서천과 북청, 부령 앞바다에서 이양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 왔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같은 해 함경도 이원현 유성리에서는 이양선의 선원들이 임시 거처를 만들기 위해 상륙해서 벌목을 하다가 조선 관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사료](#) 이양선은 철종대에도 빈번하게 나타났다으며, 심지어 이양선 선원이 조선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관련사료](#)

이양선의 지속적인 출몰은 중국의 아편전쟁 소식과 맞물려 조선 정부의 위기의식을 심화시켰다. 제1차 아편전쟁(1840~1842) 때에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전달도 상대적으로 늦었다. 아울러 남경(南京) 일대에 제한된 전투였기 때문에 중국에 끼친 영향도 제2차 아편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에서 영국·프랑스군은 북경을 점령한 후 원명원(圓明園)을 약탈했고, 함풍제(咸豐帝)는 열하(熱河)로 피신하기까지 하였다. 조선 정부는 전례 없는 사태에 북경으로 문안사(問安使)를 파견하여 실제 북경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중국의 상황으로 인해 점차 서양의 침략을 우려하는 인식들이 나타나고, 서양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4 서양과의 극단적 갈등

조선은 서양 세력의 수교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고, 조선의 천주교인과 함께 서양 선교사를 죽이기까지 했다. 조선의 조치들은 서양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곧이어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866년(고종 3) 초 조선 정부는 천주교의 확산에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 천주교도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조선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었다[병인박해]. 이 사건으로 청나라 주둔 프랑스 함대가 출동하여 강화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했으나, 조선군의 반격을 받고 결국 약 한 달 만에 후퇴했다. 1868년(고종 5)에는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Oppert)는 1866년 조선에 두 차례 통상 교섭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교섭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조선의 반서양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앞서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기 몇 달 전 평양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가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평양부의 관원을 납치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물자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에 평양부민들은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朴珪壽)의 지휘하에 좌초된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웠고, 승무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1871년(고종 8) 미 해군 아시아 함대는 제너럴셔먼호 사건 재발 방지 및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조선에 와서 외교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선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자 곧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미군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철수했다.

이상의 사건들은 조선 정부로 하여금 반서양 감정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척화비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5 양이(攘夷)의 기치와 척화비 설립

신미양요가 종결된 직후인 1871년(고종 8) 고종은 종로 거리 및 각 도회지에 척화비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비석의 크기는 높이 4자 5치, 너비 1자 5치, 두께 8치 5푼이고, 비석의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 (계아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척화비의 뜻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할 때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매국하는 것이 된다. 우리 만대의 자손에게 경계한다. 병인년(1866)에 짓고 신미년(1871)에 세우다.”이다. 당시 의주부윤(義州府尹)의 기록에 따르면 비석 건립에는 300여 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관련사료** 비석을 세운 지역은 수백 곳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도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척화비(부산 강서구), 구미척화비(경북 구미시), 기장척화비(부산기장군), 남해척화비(경남 남해군), 부산진척화비(부산 남구), 산청척화비(경남 산청군), 순흥척화비(경북 영주시), 신창척화비(충남 아산시), 양산척화비(경남 양산시), 여산척화비(전북 익산시), 연기척화비(세종특별시), 옥천척화비(충북 옥천군), 용궁척화비(경북 예천군), 장기척화비(경북 포항시), 창녕척화비(경남 창녕군), 청도척화비(경북 청도군), 청주척화비(충북 청주시), 함양척화비(경남 함양군), 함평척화비(전남 함평군), 홍성척화비(충남 홍성군)

이외에 시도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재 또는 박물관 등에서 관리하는 척화비들은 다음과 같다.

경북궁척화비(국립중앙박물관), 경주척화비(국립경주박물관), 고창척화비(전북 고창군), 군위척화비(경북 군위군), 대구척화비(대구시 천주교순교기념관), 밀양척화비(밀양시 밀양박물관), 봉화척화비(전북 봉화읍), 성주척화

비(경북 성주시), 영양척화비(경북 영양군), 예천척화비(충남 예산시), 운현궁척화비(서울시 운현궁유물전시관), 절두산척화비(서울시 절두산순교지), 척화비(경북 청도군 도주관)

6 조선의 개방과 척화비의 운명

1876년(고종 13), 척화비를 건립한 지 약 5년이 지난 후 조선은 일본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당시 상당수 지식인은 일본과의 조약을 격렬히 반대했지만, 척화를 주도한 대원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종 정권은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1882년(고종 19)에 청나라의 자문을 받아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882년(고종 19) 구식(舊式) 군인들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임오군란]. 이에 조선에서 종주권을 행사하려던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군의 배후로 지목된 흥선대원군을 중국으로 끌고 갔다. 이후 고종 정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서양 각국과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서양에 대한 배척을 상징하는 척화비가 설 자리는 없어져 버렸다.

임오군란이 진압된 직후 고종은 교서(敎書)를 내려 전국에 있는 척화비를 뽑아버릴 것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관련사료 첫째, 모든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하는 시대로 바뀌어 중국[中華]과 일본도 서양과 수호 통상을 맺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은 이미 1876년에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영국·독일과 조약을 체결하고 항구를 개방했다는 것이다. 셋째, 서양의 사교(邪敎, 천주교)는 멀리해야 하나 그들의 기술은 백성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종의 조치를 기점으로 전국의 척화비 대부분을 철거하였다.